

알록달록 전남 '색깔 마케팅' 열풍

고흥, 지붕색 통일 관광상품 활용 신안, 퍼플섬 등 우수관광마을 선정 장성,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성공

전남 자치단체가 '색깔 마케팅'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고흥화와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등의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만큼 컬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보는 재미를 제공하면서 관광 객들에게 '활력 넘치는' 지역 이미지를 심겠다는 취지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최근 거금도 관광상품화 전략의 하나로 지붕색을 통일하는 색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거금도는 인근 녹동항, 소록도와 인접한 고흥

관광의 한 축으로 적대봉, 거금 생태숲, 연흥도, 금산 해양경관도로 등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세슬러 김일, 동초 김연수 출생지로 알려져 있다.

고흥군은 이미 주황·파랑 계열로 통일한 연흥도, 빨강으로 지붕색을 맞춘 상·하화도, 노랑으로 통일한 거금대교 등을 고려해 거금도도 특정 색깔을 지붕에 사용해 이미지를 각인시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고흥군은 '거금도 지붕색 통일 관광상품화 실시 계획' 용역을 통해 지역을 상징할 색깔, 마케팅 대상 마을 규모, 관련 예산 등을 확정된 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흥군은 거금도 해수욕장·관광지와 인접한 8개 마을과 해안 일주도로와 연결한 마을 14곳 등을 중심으로 전체 세대 중 80%를 참여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8억6000만원을 들여 491세대의 지붕 색깔을 맞추는 등 내년까지

1600세대가 참여하는 색깔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게 고흥군 구상이다.

신안은 '색깔 마케팅'을 성공적인 지역 개발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다. 신안은 '색깔 마케팅'을 성공적인 지역 개발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다. 신안은 '색깔 마케팅'을 성공적인 지역 개발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다.

신안 병풍도는 맨드라미의 섬이라는 테마에 맞춰 주황색으로 통일했고, 수선화의 섬 선도에는 노랑 계열로 여행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신안 비금도는 해당화의 섬이라는 컨셉을 정하고 코발트 블루 계열로 마케팅 전략을 짰다.

장성의 경우 황룡강의 노란색(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옐로우시티(Yellow city) 프로젝트'로 도시와 주민들의 삶을 밝고 세련되게 디자인한 케이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 확대한다

종일 돌봄 25만→30만원 증액...한부모가정도 포함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실시돼 광주만의 틈새돌봄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월평균 약 170가정 및 돌봄수당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원가정 및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 양육

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촘촘하게 보충한다. 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다자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증가율 전국 최고

하나카드 코로나 이전 비교 50.3% 증가...관광산업 파란불

최근 전남지역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실적이 부쩍 늘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최근 하나카드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한 해와 2022년 한 해 동안의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실적을 비교한 '시도별 카드 이용금액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50.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49.4%), 경북(39%), 세종(2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41.5%의 감소를 보였고, 부산(26.6%), 대구(24.9%), 인천(17.7%) 역시 역성장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여수에서 사용한 외국인 카드 이용금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94.5%가 증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코로나 이전 대비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해외 홍보에 나서고, 명품 숙박지를 조성하는 등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전남도는 태국, 베트남을 우호화하는 전세기를 유지, 지난해 15일부

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해외 홍보에 나서고, 명품 숙박지를 조성하는 등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전남도는 태국, 베트남을 우호화하는 전세기를 유지, 지난해 15일부

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해외 홍보에 나서고, 명품 숙박지를 조성하는 등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전남도는 태국, 베트남을 우호화하는 전세기를 유지, 지난해 15일부

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해외 홍보에 나서고, 명품 숙박지를 조성하는 등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전남도는 태국, 베트남을 우호화하는 전세기를 유지, 지난해 15일부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美에 155mm 포탄 대여...우크라이나 우회지원 논란 '선긋기'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포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제사회 조류에 동참하고 동맹 미국을 지원하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풀이된다.

12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에 최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업체가 생산한 물량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포탄 중

일부를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1970년대 전쟁예비물자(WRSA-K)로 한국에 들여왔다가 2008년 한국이 인수한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여 수량은 33만~50만 발가량으로 추정된다.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미국 정부 기밀로 보이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155mm 운송 일정표(33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가 미측이 필요로 하는 기준치라면 수출이 아닌 대여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보다 넉넉하게 책정됐을 수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제강제동원 제3차 변제안 질문에는 즉답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으로 제시한 제3차 변제안이 사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고만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등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3차 대위변제안'을 제시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제3차 대위변제안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박병대 광주지법원장 등 참배단 12명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 주권의 상징인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여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적었다.

추모탑에 분화와 헌화를 마치고 고(故) 김경철, 윤상원, 전재수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대법원장은 "5·18 정신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 나아가 민주주의를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5·18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순천, 장흥, 해남, 목포 지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단으로 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뒤편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3년 4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500,000,000원을 금482,5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 중 보통주식 1,75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341,086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3년 4월 13일
건영전기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15(주상동)
대표이사 김병곤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3년 04월 10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8,312,500,000원을 금5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831,250주에 대하여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로 균일하게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831,250주에서 5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위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주)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3층
(금호동, 서진빌딩)
대표이사 류재봉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법인은 2023년 04월 05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4월 07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13일
들녁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감남길 98-4
청산인 전갈인

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266-1920 • 북 525-3761 • 광 571-7658 • 용 433-1503	• 문 266-1960 • 신 222-8171 • 오 266-7801 • 동 433-1503	• 동 266-1960 • 서 372-2352 • 문 376-7153 • 용 603-0311
동 구 • 남 673-6836 • 동 225-6001 • 충 222-8171	• 동 222-8054 • 중 222-8054	• 북 651-1833 • 서 675-6605
남 구 • 남 673-6836 • 서 382-5788 • 서 369-1625 • 회 376-6511 • 회 369-1625	• 북 651-1833 • 서 372-2352 • 문 376-7153 • 용 603-0311	• 남 952-1687 • 철 959-1920 • 철 973-2900 • 광 954-0444

▲ 광주호신회 4월 15일(토) (대구 비슬산 암골폭재 A산행코스 + B트레킹코스(전기차 이용))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